

나주시, 365일 시간제 보육제도 원도심까지 확대

빛가람동·남평면이어 원도심에
시간제 보육실 3호점 문 열어
연중무휴 돌봄 부모고민 해소
나주형 안심육아 체계 구축 최선

나주시가 빛가람동, 남평면에 이어 원도심 권역에 연중무휴 자녀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송월동에 위치한 궁전어린이집에서 '365일 시간제 보육실' 개원식을 개최했다.

365일 시간제 보육은 맞벌이, 주말·야간 근무, 응급 진료 및 입원 등 부모의 긴급한 사정으로 직면한 자녀 보육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사업이다.

일과 가정의 조화,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민선 8기 출범 후 역점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도내 지자체 최초로 빛가람동 킨더브레인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실 1호점으로 도입했으며 올해 3월 남평어린이



윤병태 나주시장과 보육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나주 송월동 궁전어린이집에서 열린 '365일 시간제 보육실' 개원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이집을 2호점으로 개원했다.

새롭게 문을 연 3호점인 송월동 궁전어린이집(원장 최수정·나주시 남교문로 36-14)은 10월 1일자로 운영에 들어갔다.

돌봄 서비스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직장을 둔 부모의 '생후 6개월~미취학 아동'이다.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비용은 시간당 3000원으로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도 이용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365일 시간제 돌봄은 나주시가 도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선도 보육 행정으로 긴급한 사정에 놓인 부모의 고민을 해소해주면서 큰 호응

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빛가람동, 남평에 이어 원도심 권역까지 3대 권역에서 연중무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주형 출산 정책, 안심 육아 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저출생 시대 극복에 앞장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김용의 기자

여수시, 달빛갤러리 전시작가 공모 18일까지 등기우편 접수

여수시가 오는 18일까지 2025년 달빛갤러리 전시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달빛갤러리'는 시가 역량 있는 지역 예술인을 발굴해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된 작가는 내년 중 달빛갤러리에서 전시 기회와 함께 전시 큐레이션 및 홍보물 제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모 지원 자격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이상 작가로 활동 중인 자 △3년 이상 여수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자 △여수 출신으로 최근 5년 이상 작가로 활동 중인 자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면 된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역(출신) 예술인은 여수시 누리집(www.yeosu.go.kr) 내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향후 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 평가를 통해 6팀(개인/단체)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담양군민사랑방 주말 확대 운영 2026년까지 12개소 확대

담양군이 중장년층의 여가와 소통을 지원하는 중년 쉼터인 '군민사랑방'을 주말까지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인 '담양형 향촌돌봄'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로,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확대 운영은 오는 11월 25일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담양터미널 입구에 마련된 군민사랑방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담양군 군민사랑방의 주요 이용 대상은 담양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층으로 지난 8월 말까지 4300여명, 월평균 20명 이상이 꾸준히 방문하며 중년층의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 및 소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담양=신재현 기자



영암군 삼호읍 HD현대삼호 앞바다에서 시민들이 갈치낚시를 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8월21일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HD현대삼호 해안 일원에서 낚시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영암군, 삼호 앞바다 갈치낚시 한시적 허용

영암군이 지난 8월2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개방한 삼호읍 HD현대삼호 앞바다에서 갈치낚시가 한창이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평소 이 지역은 항만구역으로 조업이 금지돼 있지만 어민 소득증대,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영암군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 일반인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삼호 갈치낚시터 개방 소식을 들은 전

국 낚시동호인과 젊은이 등 하루 평균 110여 명, 총 3000여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 장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도시와 가까운 밤바다에서 운치 있는 조선소의 야간 불빛을 조명 삼아 은빛 갈치를 낚아 올리는 목격하면서도 짜릿한 손맛에 반한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영암군에서 갈치낚시를 하려면 박 씨처럼 삼호소형어선물양장에 주차하고 갈

치낚시배 선주의 소개를 받아 바다로 나가면 된다.

낚시는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할 수 있고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선상 음주와 흡연 등 위험 행위는 금지된다.

영암군은 갈치낚시터 개방에 앞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을 낚시 어선 13척의 안전 점검을 마쳤다.

앞으로도 꾸준히 합동단속 등을 실시해 안전한 갈치낚시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암=한교진 기자

화순군, 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화순군은 3일 외식 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5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받아 현장 조사,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음식점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데 최대 140만원(자부담 50% 이상)을 지원받으며 지원받은 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자격 제한 사안으로는 △공고일 기준 영업주의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식품위생법 위반

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선정되기 전에 시설을 개선했던 경우△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5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서류를 첨부, 화순군 관광체육실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관광체육실(061-379-3491)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지속가능한 농업 '퍼머컬처' 과정 화순군, 신규농업인 대상 교육

화순군은 3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 농업 '퍼머컬처' 과정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퍼머컬처(Permaculture)란 지속 가능성, 농업, 문화의 합성어로 생태계의 자연순환 방식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퍼머컬처 기본 개념부터 체험·지유 농장으로서의 생태 농장, 국내외 사례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룬다.

모집 기간은 정원 충족 시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총 50명으로 화순군민 및 예비 귀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역량개발팀(061-379-54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장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이 신규 농업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익혀 먹기 등 예방 수칙 준수

화순군은 3일 가을철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되지 않도록 어패류 섭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3일 도내 첫 환자 발생 후 지난달 24일 기준 총 3명의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했다.

호남권질병대응센터에서 주관해 해수·갯벌에서 실시하는 해양 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후균 감시사업 결과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시 감염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6~10월 많이 발생한다.

감염 경우 급성 발열·오한·혈압 저하·복통 등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 다리 쪽에 발진·부종·수포 등의 피부병변이 생기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치료받아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사람 간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고위험군인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 의존자 등은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져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패류 완전히 익혀 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 금지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저장, 85도 이상 가열 처리 △어패류 조리 시 흐르는 수돗물로 씻기 △어패류 취급 시 장갑 착용 △도마, 칼 등 소독 후 사용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미라보건소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선이나 어패류를 완전히 익혀 드시고, 생식 후 급성 발열, 피부 병변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진료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